

제1차 사회교육 심포지움
사회교육-미래사회의 열쇠

미래를 여는 사회교육

정범모/한림대 교수

사회교육의 내용

정지웅/서울대 교수

사회교육의 관리

백명희/이화여대 교수

학교를 통한 사회교육

황종건/계명대 교수

未來를 여는 社會教育

정 범 모

한림대 교수

미래를 여는 사회교육이란 매력적인 주제다. 그것은 사회교육이 미래전망과 어떤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뜻, 또는 미래로 향하는 대세에 부응해야 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사회교육이 바람직한 미래를 실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 더 내포되어 있는 주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교육이라고 다 미래를 여는 역할을 한다는 뜻은 아니며, 어떤 사회교육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한편 사회교육은 흔히 성인교육, 계속교육, 평생교육, 비공식교육이라고도 불리우는 주로 비학교인구, 성인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비공식적인,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운영되는 교육이라고 여기에서 해석한다. 이런 사회교육이 미래를 여는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특징을 지녀야 할 것이냐가 주제가 되는 문제이다. 여러 논자들이 미래를 전망하는 주요한 차원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미래의 사회교육의 몇몇 특징을 다섯 가지로 생각해 본다.

1. 未來指向的

당연한 이치로서, 미래를 여는 사회교육은 그 목적 또는 과정에서 미래에의 관심이 있어야, 즉 미래지향적이라야 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관심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우선 “이대로 가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를 과금(過今)의 경향을 연장 또는 외삽해서 생각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GNP는 어떻게 되고, 수출은 어떻게 되며, 기술은 어떻게 발전하고, 가족제도는 어떻게 되며, 좀 어둡게는 공해·오염은 어떻게 늘어가

고, 자원은 어떻게 고갈되며, 인구는 어떻게 마구 늘어가고... 등을 미래에 추정하며 투사한다. 많은 학자, 논자들이 이런 투사로서 미래 관심을 표명한다. 이들의 경제, 정치, 과학, 기술, 사회제도, 인구, 자원, 자연환경, 가치관 등등에 관한 이런 여러 투사적인 미래추정에는 예고 또는 경고로서 참작할 바가 많다. 비슷한 외삽이지만, 개개의 측면의 연장이 아니라, 토플러의 “제3의 파도”처럼 커다란 종합으로서의 문명의 변천으로 파악하는 수도 있다. 이 모두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준다. 그만큼 사회교육의 과정과 내용에서 취급될 만 하다.

그러나 미래지향은 “올 수 있는 미래”나 “올 듯한 미래”를 운명 기다리듯 수동적으로 받아드리는 자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역사에는 언제나 예고할 수 없는 돌발사가 많이 개재된다. 또 미래란 다가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바람직한 미래”를 투사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은 미래란 그 향방의 대세는 있지만, 인간의 개인적 집단적 결정에 달린 문제의 연속이라는 능동적인 관점을 가능케 한다. 대세를 따르느냐 거역하느냐 아니면 바람직한 미래와 종합 하느냐도 결정의 문제이고, 돌발사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더더구나 결정의 문제이다.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인 현명한 결정의 능력과 자세와 용기는 미래를 향하여 더없이 필요한 능력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결정부하량” 즉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커지고 무거워지고 빨리 빨리 다가온다는 전망이다.

미래지향은 또한 장기적인 안목을 포함한다. 단기적인 이득을 노리는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먼 내일을 믿고 또 염려하는 자세를 요구한다. 이런 장기적인 안목은 실은 가지기 어려운 것이다. 이 달에 밭천을 들여 내달에 벌어들일 계획이나, 봄에 심어 가을에 수확할 농사계획은 마음먹기 쉽지만, 3,40년 후에야 얻을 임목의 묘목을 지금 심는 심정은 까마득하다. 더구나 100년, 200년 후에 따서 마실 포도주를 만들어 통에 넣고 마개를 막고 딱지를 붙이는 사람은 정말 장기적인 안목과 도통한 사람이라 할 것이다. 미래를 향해서 필요한 것은 정책 수립, 기업운영, 도시계획, 건축, 교육계획... 모든 사회사와 개인사에서 이런 장기적 안목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너무 단기적으로 이득, 업적, 출세를 노리는 풍조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해(害)도 많이 보았다.

미래지향에서 정말 장기적 안목은 도리어 “무시적(無時的)” 안목, 즉 때와 다음에 돌아올 이득에 관계없이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저축은 다음의 이득을 겨누어서라기 보다는 어떤 경우에도 근검,

저축은 그 자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축하며, 비닐봉지, 유리병을 내던지는 것은 이 다음에 환경이 오염되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자세를 말한다. 기실 아주 먼 내일에 문자 그대로 “전망”되어 보이는 것은 아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관심이 도리어 가장 장기적인 “전망”을 형성할 수도 있다. 미래지향은 이렇게 어떤 시간적 공간적으로 보편 타당한 의무론적 추구를 포함할 수 있다.

사회교육이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뜻은 그 목적과 내용에 이런 미래에의 관심, 미래결정의 능력, 장기적 안목, 의무론 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 人間教育으로서

사회교육은 흔히 빨리 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한번 배운 것이 곧 진부해서 쓸모 없게 되기에 다시 배워야 하며, 지식과 기술은 자꾸 진보하기에 계속 배워야 한다는 이유로써 정당화된다. 교육 또는 성인교육의 이런 정당화는 변천이나 진보의 속도가 느리면 사회교육이 필요 없다는 말과 같다. 미래로 향해서는 사회교육을 이렇게 재교육, 보충교육으로서 정당화하고 그 목적과 내용을 전개할 것이 아니라 당당한 인간교육으로서 정당화되고 전개되어야 한다. 즉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인간이 되기 위해 끝없이 배워야 한다는 관점을 말한다.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이 관점에 더 가까울 것 같다.

인간적 존재를 규정하는 특징은 많다. 그러나 거기에서 탄생시에는 동물 중에서 가장 무력한 자가 “자라나서”만물의 영장이 된다는, 성장 또는 자아실현이라는 특징을 빼놓을 수 없다. 사람은 생리적으로 약 20년 동안 자라나지만, 문화적으로 죽을 때까지 자라날 수 있다. 지식에서, 기술에서, “관(觀)“에서, 도덕에서 자라나기를 멈출 때 사람은 인간 되기를 멈춘다. 나이의 노클 막론하고 사람에게에는 언제나 배울 것, 자라날 것, 이를 것이 있다. 그것이 전에 못해본 사군자치기일 수도 있고, 단소불기일 수도 있고, 테니스일 수도 있고, 서로 알아보는 유전학 또는 천문학의 세계일 수도 있으며, 어떤 새로운 도덕적, 철학적, 종교적인 깨달음일 수도 있다. 이런 작고 크며 사고하고 중요한 성장 또는 자아실현이 인간적인 삶의 충일감, 생동감을 주며, 이것이 없을 때 허무감과 소외감이 스며든다. 사회교육은 그 쓸모를 강조하기 전에 우선 이런 인간 되기를

계속하는 인생과정의 반력로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학불염 교불권(學不厭教不倦)이라는 논어의 말은 생애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에릭슨이 인생과정을 8단계로 나누어, 성인초기, 중년기, 노년기의 중심적인 발달과제까지도 상세히 논한 이론은 사회교육에서 크게 참고할 만하다.

한편 미래의 중요한 문제의 차원이 인간화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교육으로서의 사회교육의 인식은 이 관점에서 필요하다. 공업화가 중심이 된 현대사회의 비인간화의 조류, 집단화, 조직화, 관료화, 물량화, 조직화, 집권화 등이 빚어내는 인간상실, 소외감 등의 비판이 크게 인 것도 이미 오래다. 게다가 근자에는 환경오염, 공해, 가치관의 혼미, 배금주의 등에 관한 시정의 호소도 크게 메아리치고 있다. 슈바커의 말대로 발전이라는 열광 속에서 빚어진 자연을 잠식하는 생산체제와 인간을 훼손하는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이 이미 높다.

경제 일변도의 발전정책보다는 정치, 경제, 교육, 학문, 예술 등이 전면의 균형 있는 전체적인 정책이 추구되어야 하는 것도 미래차원의 하나다. 이런 전체론적 접근은 인간론적, 또는 문화론적 접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일면 “생활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바람직한 생활의 질은 경제 일변도만으로서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원칙에 관한 인식이 있고, 또 한편 이런 전체론적 접근만이 고도발전에 필요한 고도의 과학, 고도의 기술, 고도의 도덕, 고도의 예술, 고도의 창의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효율에 관한 인식도 있다. 또한 이제는 경제발전 그 자체가 공업 발전에 기대느니보다는 점점 정보발전에 기대게 된다는 미래전망 또한 발전정책에서의 전체론적 또는 인간론, 문화론적인 접근의 필요를 강화한다.

사회교육이 인간화 또는 인간론적 접근을 그 목적과 내용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른들이 지금 이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인간화라는 미래과제를 위해서는 더 긴급하고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3. 내재적 가치를

경제발전이 무엇보다도 초미지사일 때에는 모두가 그것을 위해서 수단이 되고 이용되며 동원된다. 그래서 교육도 인간교육이기 보다는 발전교육 또는 “인력교육”이라 하며 그 수단으로 동원되고, 정치도 발전정치, 행정도 발전행정이

라 하여 경제발전을 돕는 정도에 따라 정당화된다. 가치관이나 논리까지도 발전논리라 하여, 예컨대 근면, 성실, 정직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아니라, 그것이 생산을 돕고 판매를 돕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미만한다. 예술도 학문도 과학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쓸모 즉 수단적 가치로서만 그 보람을 따진다. 심하게는 사랑도 효도 우애도 정당의 수단으로 보며, 인간 그리고 나 자신마저도 다 수단으로만 보게 된다. 그래서 인간상실, 자아상실이 호소되기도 한다.

우리는 여기에 우선 한 가치도착증을 엿볼 수 있다. 즉 본래는 사랑, 효, 윤리, 예술, 학문, 교육을 위해서 부가 수단으로 필요한 것인데, 거꾸로 부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이 수단이 된 셈이다. 현대인의 가치상실감은 여기에도 비롯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현대병리는 심한 수단주의, 또는 목적편향주의에 있다. 즉 여러 사물, 여러 활동의 오재적, 수단적 가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쓸모로써의 가치에만 집착하며, 그 자체가 내재적 목적적 가치, 그 자체로서의 맛, 멋, 율, 재미, 묘미, 오묘, 보람은 보람으로 여기지 않는 병리에 있다. 밥맛은 모르고 힘 차리기 위해서만 먹는다면, 수자의 멋과 묘미는 모르고 입시를 위해서만 수학공부를 한다면, 테니스의 재미는 모르고 건강을 위해서만 테니스를 친다면... 이런 생은 어딘지 모래를 씹는 듯한 맥빠지고 의미 없고 재미없는 장면의 연속일 것이다.

심한 수단주의는 우선 지금 하는 일의 맛, 재미, 묘미가 없기에 전심불채, 몰두불채로 이끈다. 생이 몰두함이 없이 건성 돌아간다. 그런 생에서는 별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기에 그것은 의미부재와도 연결된다. 수단주의에서는 목적과 가치는 지금 일이 아니라, 언제나 다음 다음의 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의 연속인 생자체이는 목적부재, 가치부재감이 깃든다. 그것은 또한 수단을 써서라도 목적을 따는 것이 관심이기 때문에 쉽게 윤리부재로 연결된다. 또 본래 학문, 과학, 예술 등 문화라고 부르는 인간의 산물은 그것을 써먹으려는 심사에서 보다는 그 오묘함에 황홀히 젖어들어 가는 사람에 의해 이룩된 것이며, 돈벌이 하려고, 써먹으려고 하는 예술이나 학문이란 결국 문화부재 현상에 이르게 되며, 문화의 축적 없는 사회는 결국 역사부재라는 현상까지도 생길 수 있다.

모든 사물과 활동은 그 자체로의 내재적 가치의 차원과 다른 것으로 이어지는 외재적 또는 수단적 가치의 차원을 다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발전의 열망 속에서 종래 우리가 그 수단적 가치만을 너무 강조했다면, 미래는 그 내

재적 가치를 소생시키는 방향을 찾는다. 그것이 앞에 말한 여러 가지 부재감을 충일감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런 방향은 사회교육에는 두 가지 시사를 던진다.

첫째, 교육 인발에서도 사회교육에서도 여러 사물과 행동의 어떤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적 가치를 너무 찾지 말고 그 내재적 가치를 밝혀야 할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예컨대 과학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묘미와 재미 때문에 공부하고 찾고 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그런 황홀한 묘미를 들어낼 줄 아는 교육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교육 자체도 그것이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개인출세에 기여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추구될 보람, 내재적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앞 항에서 말한 인간이기에 계속 공부해야 한다는 인식과 상통한다. 이 두 가지 시사는 종래 우리의 관용사고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전환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차원은 그 방향을 시사한다.

4. 決定과 參與

미래로 향하는 뚜렷한 방향의 하나는 결정부하량의 급증과 이에 따른 결정의 분산과 참여의 확대에 있다. 따라서 미래를 내다보는 사회교육에서는 결정과 참여에 관한 문제가 그 목적, 내용, 방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혹독한 가난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발전의 계획과 운영, 조정은 그 효율을 위해서도 흔히 중앙에서 집단적으로 행해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것은 마치 혹독한 적과 싸우기 위해서 모든 전력을 총합하고 명령계통을 일원화하는 전시체제와도 비슷하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크게 진척되어 이른바 “역사적 대중적 빈곤”이 해결되며, 동시에 여러 사회구조와 활동이 다기화, 다양화, 다원화함에 따라 사회는 이런 집단적 결정체제로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

즉 이런 추세에서는 여기저기에서 결정해야 할 일, 이른바 결정부하량이 급격하게 많아진다. 결정해야 할 문제의 성질도 다양해진다. 뿐만 아니라, 만사가 템포가 빠른 사회이기 때문에 결정도 빨리 해야 한다. 더 여러 종류의, 더 많은 문제를, 빨리 결정해야 할 상황에 진입해서도 집권적인 결정체를 고집하면 그

결과 너무 부적절한 결정, 너무 느려 때를 놓치는 결정, 너무 황급하고 경솔한 결정 등이 속출하는 지경이 된다. 어느 시점에서 결정권의 분산, 재분배가 필요하게 되며, 참여와 자율의 폭을 점차 넓히지 않으면 안 된다.

보다 근본적으로 참여와 자율은 이런 결정의 효율의 견지에서보다는 “생활의 질”이라는 견지에서 점점 각성과 추구의 대상이 된다. 모진 가난에서 벗어나서 풍요를 맛보게 됨에 따라 사람들은 풍요 그 자체가 “생활의 질”이 아닌 것을 새삼 깨닫게 되고, 풍요 이외 또는 이상에서 보람있는 생활을 찾게 된다. 그 “생활의 질”의 풍요한 차원이 결정참여, 자율이라는 차원이다. 사람은 스스로가 결정하며 자기도 관계되는 일에는 자기도 참여하는 데에서 스스로가 인간임을 확인하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진전을 의미한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오늘의 대의·민주주의는 점점 그 존재 이유가 희박해지고, 대신 반 직접민주주의 또는 참여 민주주의가 더 필요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이런 추세와 관계된다.

사회교육을 더구나 대상이 어른들이기 때문에, 흔히 교육, 가르쳐준다는 말이 풍기기 쉬운 타율성보다는 배운다는 말이 풍기는 자율성을 특히 강조할 만 하다.

처칠이 “나는 배우고 싶다. 그러나 가르침을 받기는 싫다.”라고 한 말은 많은 성인교육에서 유의할 만 하다. 한 단위의 사회교육, 한 상황에서 교육목적, 교육내용 그리고 교육 또는 학습방법을 학습자 자신들이 결정하고 또는 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린이에게도 응분하게 필요하겠지만, 특히 어른들의 경우에는 거의 불가결한 것이다. 흔히 보는 반 경제적, 타율적 교육 상황은 어른의 경우에 거의 교육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다른 한편, 어른들의 현명한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 결정의 능력 자체를 배양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계획할 만 하다. 결정이란 기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에 결정한다는 일은 인간이기에 바라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회피하고 기피하고 남에게 결정을 의지하는 습성도 우리에게 쉽게 갖들기도 한다. 결정에는 그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기에 용기도 필요하고, 적절한 결정이어야 하기에 지혜도 필요하다. 때로는 남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포용성도 필요하고, 때로는 반대로 남의 의견에 나부끼지 않는 원칙성도 있어야 한다. 현명한 집단적 결정에는 이런 것 이외에 더 필요한 속성들이 많다. 집단적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 현명한 결정에 도달하기보다는 자칫 오해, 갈등, 분열, 폭력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미래는 참여의 확대로 열려가

되, 참여와 자율과 결정의 능력 또한 어디에선가 길러져야 한다.

5. 보다 나은 世代로서의 關心

에릭슨은 중년기, 30, 40, 50대의 대부분, 인생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시기의 중심적인 심리적 문제 따라서 생활과업의 중심적 특징을 생산성 침체성의 문제로 보았다. 여기에서 생산성이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일도 포함하고, 생업상의 어떤 업적을 이루고 쌓는 것도 의미한다. 그리고 보다 넓게는 자기자신 이외의 사람들, 넓은 사회, 내일의 역사 등을 돌보고 걱정하고 생각하며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방향의 성취가 있으면 생기는 생산감과 반대로 그런 성취가 없으면 빠지게 되는 침체감 사이에 이 시기의 심리적 문제가 있다고 그는 말한다. 중년 자신이 인생의 발달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셈이다.

또 한편 우리가 미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 미래사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 미래사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미래에 관한 관심을 미래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와 동시에 그대 사람들 즉 미래세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의 관심을 포함하며 또 포함해야 한다. 보다 나은 미래는 보다 나은 내일의 사회조건과 동시에 보다 나은 세대가 생겨남으로써 약속될 수 있다.

보다 나은 세대란 오늘의 어른들보다 지적, 도덕적, 예술적으로 성숙하고 보다 격조 높은 수준의 도달을 이룬 세대를 말한다.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보다 나올 수 있는 것은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 또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요순시대보다 더 나올 수는 없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 장유유서를 과대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탐탁치 않을런지도 모른다. 또 한 세대가 다음 세대보다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친족 같은 전통이 이어져 가는 한민족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명백히 지금의 20대는 50대보다 평균신장이 훨씬 크다. 보다 나은 영양과 보건위생 때문이다. 오늘의 20대가 50대 즉 30년 전의 20대보다 지적, 도덕적, 예술적으로 더 낫다는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없으니 그 증거는 아직 없다. 다만 “정신적인 영양과 보건위생”여하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엄연하게 있다.

우선 교육이 그 가능성을 보장한다. 먼저 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보다 많은

사람이, 보다 긴 세월, 보다 좋은 교육을 받았다면 다음 세대는 보다 나은 세대가 될 수 있다. 지금 50대보다는 지금 20대가 더 많이, 더 긴 세월의 교육을 받았다. 다만 더 좋은 교육을 받았느냐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도 더 나은 세대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적으로 더 성숙되고 독단이나 선입견에 덜 빠지는 세대, 도덕적으로 더 성숙되고 더 자율적인 세대, 예술적으로 더 심미적이고 생산적인 세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제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의 효율기회를 넓히고 깊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질의 향상 및 보장에 얼마만큼이나 관심을 갖느냐에 달려 있다.

다음 현대 산업사회와 더불어 길어지는 청년기 또한 보다 나은 세대의 출현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청소년기는 흔히 주변기, 소외기, 폭풍우의 시절, 제 2의 탄생기 등으로 불리우며, 고민과 좌절과 갈등 그래서 “문제”도 많은 시기라고 주목받는다. 그리고 그런 청년기는 문명의 고도화와 더불어 더 많은 청년들에게 20세, 25세, 30세까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이것은 문제의 시기가 점점 더 길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면 이 문제의 시기는 동시에 탐색, 학습, 사색의 시기며, 그것이 길어질수록 탐색, 학습, 사색도 길어지고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느냐는 것을 뜻한다. 그것이 인간이 생리적 심리적 성장기가 가장 길기에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다는 이치와 같이 보다 긴 정신적 성장기는 보다 성숙된 지적, 도덕적, 예술적 능력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심리학자 콜버그는 사람의 도덕성 발달의 단계를 전관계적 두 단계, 관계적 두 단계, 후관계적 두 단계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의 하나로 태반을 넘는 많은 미국성인들의 도덕성은 관계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후관계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어른들이 벌이는 정치, 경제, 사회 여러 활동에서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보다 긴 청년기, 따라서 보다 긴 탐색, 학습, 사색의 경험은 더 높은 도덕성에 이를 수 있는 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지적, 예술적 그리고 다른 능력이나 특성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을 연구해 볼만하다. 다만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의 긴 청년기를 이해하고 그들의 탐색, 고민, 학습, 사색이 생산적 성장적이 되도록 도와주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셋째, 문화변천 속에서 앞에 가는 세대와 뒤에 가는 세대의 생육사의 차이는 뒤에 가는 세대가 더 타당한 미래감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 따라서 미래에 더 현명하게 대처할 능력을 가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것은 앞 세대보다는 뒤 세대가 만사를 더 인상깊게 받아 들이는 더 어린 나이에서 더 현대적

인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들의 경험은 미래에 더 “가깝다.” 예를 들어,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풍경화를 들과 산과 해와 구름만이 아니라 하늘에 인공위성을 잔뜩 그려 놓고 “하늘에도 교통순경이 있어야겠다”고 주석을 붙인다. 하늘을 보면 해와 달과 별만 “보는” 어른보다 이 아이의 미래감각이 더 정확하다. 다만 그것이 지적으로 아직 덜 세련되어 있을 뿐이다. 지금 어른들은 이 세상에 종말은 없다는 생각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인구폭발을 들어도 “설마”하는 심사가 있다. 그러나 오늘의 청소년들은 하도 원자탄, 인구, 자원, 오염의 문제를 듣다보니 세계의 종말이 있을 수 있는 관(觀)을 가지고 있다. 미래감각은 이들의 것이 더 정확하다. 문제는 기성세대가 얼마나 그들의 미래감각, 비판감각을 존중하며, 얼마나 그 지적 세련화를 도와주느냐에 있다.

이런 기성세대의 책임, 보다 나은 세대를 출현시키는 책임은 사회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며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미래를 여는” 사회교육의 필수조건일 것이다. 기실 자칫하면 기성세대는 그 관성 때문에 보다 나은 세대의 출현을 도리어 방해하고 미래를 닫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